

전남신재생에너지 '화합 한마당' 대축제

조합원·군민 등 4000여명 내일 고흥 팔영체육관서 출정식
지역기업·대기업·공기업 동참 미래 농어촌 동력 사업 모색
유명 가수 초청...주민 노래자랑·퍼포먼스 등 초대형 콘서트

신재생에너지를 미래의 농촌 먹거리로 삼고 자발적으로 조합을 결성한 전남도민들이 한마당 축제를 펼친다.
전남신재생에너지주민협동조합(연합회장 정진화)과 신재생에너지 협동조합 컨설팅 기업인 전남NRE는 오는 11일 오후 2시 고흥 팔영체육관에서 '전남신재생에너지 주민협동조합 출정식'을 갖는다고 9일 밝혔다.
조합원 2000명과 고흥군민 2000명 등 총 4000명이 참여하는 이번 출정식은 신재생에너지에 관한 사업 설명회와 축사, 퍼포먼스 등으로 진행된다.
이외 최진희와 조항조, 김범룡, 박현빈 등 유명 가수 19명이 출연해 한마당 흥을 선사하는 초대형 콘서트로 꾸며진다.
이번 축제는 지난 3월 무안 스포츠파크에서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조합원 모집에 돌입한 이래 불과 5개월 만에 조합원 2000명을 돌파한 것을 기념하는 축제의 장으로 마련됐다.
또 SK건설과 SK E&S, 한전산업개발(주), 한국서부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중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등 국내 굴지의 대기업과 발전 공기를 비롯해 우람에너지·우주종합건설, 금강전력, 한성파인에스 등 10여개 중견 지역기업이 동참해 주민들과 하나 되는 행사로 펼쳐진다.
또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력공사 등 정부 주요부처와 에너지 공기업들의 후원도 이어지는 등 민·관이 함께하는 명실상부한 '신재생에너지 대축제'로 펼쳐지게 된다.
특히 이번 축제를 계기로 고흥화와 인구 감소로 생계마저 위협받는 농어촌의 현실에서 염전이나 휴경지, 염해지, 담수호, 간척지 등을 활용한 주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농어촌 재생'의 새로운 동력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주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대기업과 공기업이 간척지 등에서 대단위 신재생에너지 단지를 조성하고 인근 지역민이 자발적으로 꾸린 협동조합이 운영지분의 20%를 갖고 20년간 발전소를 공동 운영하는 방식이다.
농가 소득의 획기적인 증가는 물론 지자체 세수 증대와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

성화, 인구 증가, 휴경을 통한 토지질 향상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된다.
신재생에너지 주민협동조합장은 "이번 행사가 국내에서는 그동안 볼 수 없었던 주민과 대기업, 공기업이 하나가 되는 화합의 한마당이 될 것"이라며 "기업과 주민의 상생 모델을 제시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보여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남신재생에너지주민협동조합은 신안과 영광, 무안, 영암, 고흥, 진도, 완도, 강진, 장흥, 해남, 순천 등 10개 시군에 11개 조합으로 구성됐다. 앞으로 전남지역 나머지 11개 시군에도 조합을 꾸릴 계획이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영암농협 '2관왕' 영예

2분기 농가소득·지도사업 종합평가 우수 표창

영암농협(조합장 박도상)이 농가소득 및 지도사업우수 농협으로 선정돼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농협전남지역본부 등에 따르면 영암농협이 지난 3월 서울 농협중앙회 본부 대강당에서 열린 우수 농협 시상식에서 2관왕에 올랐다.



박도상(사진 오른쪽) 영암농협조합장이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으로부터 상패를 받고 악수를 하고 있다. <영암농협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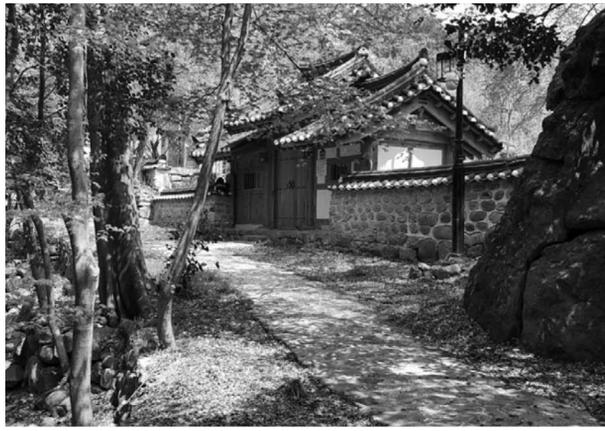
이번 시상상은 2분기 농가소득 증대추진 우수 5개소와 지도사업 종합평가 우수 8개소 농협에 대한 시상으로 영암농협은 타농협의 단수 수상과 달리 농가소득증대와 지도사업 모두에서 수상해 2관왕 타이틀을 거머쥐어 눈길을 끌었다. 특히 지도사업 분야에서는 농촌형 전국 1위라는 쾌거를 달성했다.

박도상 조합장은 "이번 수상은 우리 조합원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 그리고 영암농협 임직원들의 성실한 노력에 힘입은 결과"라며 "더욱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 알고 앞으로도 농촌의 현실에 더욱 고민하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암·문병성 기자 moon@

'호남 3대 정원' 강진 백운동 원림 명승 등록 추진

'호남 3대 정원'인 강진 백운동 원림(사진)이 국가지정 명승 등록에 한 걸음 다가섰다.
9일 강진군에 따르면 백운동 원림 명승 등록과 관련해 최근 문화재청 관계자 문화재위원 등 총 8명이 현지 조사 활동을 벌였다.
문화재청장이 지정한 국가지정문화재는 국보, 보물, 중요민속자료,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중요무형문화재 등 7가지 유형이다.
백운동 원림이 명승으로 등록되면 강진군 최초 명승이 탄생하게 된다.

백운동 원림은 조선 전기까지 백운사라는 암자터로 존재해 왔으나 1670년경 이담포가 은거를 위한 별서로 새롭게 조성한 곳이다.
최근 강진군은 다산 정약용이 다녀간 뒤 1812년 전후의 별서정원으로 복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승욱 강진군수는 "백운동 원림의 국가지정문화재 명승지정 추진을 계기로 월출산과 경포대 계곡, 무위사, 월남사지 등 월출산권 문화자원을 관광벨트화 하는데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



장흥 사법기관 건물 신축 이전 사업 본격화

장흥지원·지청 들어설 3곳 내달중 현지실사
4000여평 규모 부지 확정낸 내년부터 이전공사

그동안 법조수요가 적고 관할구역이 협소하다는 이유로 표류해오던 장흥 사법기관 건물 이전사업이 부지물색에 나서서 등 활기를 찾고 있다.
9일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 따르면 올 들어 대법원이 장흥지원 건물이 세워진 지 50여년(1972년 건립)에 이르러 전국 일선 법원 건물 가운데 가장 낡고 오래된 청사로 재건축(이전) 해야 한다는 방침에 따라 올 연말 안으로 부지 4000여평 규모

의 새로운 틀 마련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장흥지원은 지난달 8월에 장흥읍 소재지 일원 3곳을 일단 대법원에 통보하고 다음달 대법원 관계자들이 현지 실사후 이전부지가 결정되면 내년부터 본격적인 이전공사가 이루어 질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광주지청 장흥지청 역시 청사가 낡고 오래돼 법무부가 재건축에 대한 필요성은 인정하나 아직까지 법원측 움직임과는 달리

부지매입 작업 등 구체적인 이전계획을 밝히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1909년 장흥재판소로 개칭된 광주지법 장흥지원과 광주지청 장흥지청은 1982년까지 장흥읍을 포함 보성군, 해남, 영암, 완도, 강진 등 6개군을 관할 해오다 해남법원·지청 개칭으로 1983년부터 장흥과 강진 2개군만 관할하는 전국에서 가장 규모가 적은 사법기관으로 전락한 상태다.
한편 보성지역(별교지역 제외) 주민들은 90년대 이후부터 지리적생활권을 근거로 사법기관(법원·검찰) 관할을 장흥지원·장흥지청 산하로 옮겨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장흥·김용기 기자·중부취재본부장

'무화과 축제' 연다

14일부터 영암 삼호읍

무화과 최대 주산지인 영암군 삼호읍 나불리에서 14일부터 사흘간 무화과축제가 열린다.
'꽃을 품은 무화과 맛과 멋!'이란 주제로 열린 이번 축제는 다채로운 공연 행사와 참여행사, 체험 및 판매 행사로 구성됐다.
방문객은 신선한 무화과를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도 있다.
영암은 한국 최초로 경제작물로 무화과를 재배한 첫 시배지이자 전국 무화과의 60%에 달하는 약 5400t을 생산하는 무화과의 고장이다.
/영암·전봉헌 기자 jbh@kwangju.co.kr



"장흥 편백숲 우드랜드 편백수로 힐링하세요"

족욕탕·족압로 관광객들에 인기 끌여

장흥군 편백숲 우드랜드에 설치된 편백수 발원지 족욕탕과 족압로가 관광객들의 인기를 끌고 있다. <사진>
9일 장흥군에 따르면 우드랜드 상부에 위치한 편백수 발원지는 생명의 싹을 상징하는 편백 씨앗을 형상화한 조형물로 전체적인 모습은 물방울 모양으로 생명의 근원인 물과 자연을 뜻하고 있다.
발원지에서 흐르는 물을 이용해 족욕탕과 숲속 힐링 족압로(발지압길)를 만

들어 놓았다. 족압로를 따라 걸어보면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물총놀이도 체험할 수 있다. 최근 광주광역시건강복지센터 봉사자 30여명이 우드랜드를 찾아 편백수 발원지 족욕탕에서 숲 치유 프로그램을 체험했다.
장흥군 관계자는 "치유와 문화가 공존하는 편백숲 우드랜드에서 몸과 마음의 새로운 활력을 찾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흥·김용기 기자·중부취재본부장



지오옥션 부동산 중개법인(주)

경,공매 컨설팅

수익형 추천 물건

- ★ [건물] 광주 동구 금남로5가(중심상업지역) 토지:912,50㎡(276평) 건물:1,477,64㎡(446.9평) 지하층 지상4층 매매가:48억 대로변, 전시효과최상
- ★ [건물] 광주 광산구 송정동 (일반상업지역) 토지:1,349㎡(408평) 건물:1,350,03㎡(408.3평) 지하층 지상4층 매매가:61억 8차선대로변
- ★ [건물] 광주 북구 일곡동 토지:7,662.4㎡(2,317.8평) 건물:6,864.61㎡(2076.5평) 지상3층 매매가:105억 아파트밀집지역,복합사우나건물 (보증금 4억3천, 월수입 2천7백)
- ★ [건물] 광주 서구 농성동 (준주거지역) 토지:3,104.6㎡(939.1평) 건물:11,543.18㎡(3491.8평) 지상9층 매매가:100억 대로변, 지하철역세권, 전시효과 최상, 수익률최상
- ★ [건물] 광주광역시 광산구 선암동(근린상업지역) 토지:2,485.20㎡(751.77평) 건물:5,802.89㎡(1755.37평) 지상3층 매매가:85억 선운지구 상권밀집지역 (보증금 6억, 월수입 3천)

병원

- ★ [의료시설] 광주 동구 학동 토지:619,62㎡(187.4평) 건물:1,458,86㎡(441.3평) 지하층 지상4층 매매가:30억 아파트 밀집지역 대로변, 조대병원인근
- ★ [의료시설] 광주 동구 대인동 토지:514,40㎡(155.6평) 건물:2,143,08㎡(648.2평) 지하층 지상5층 매매가:32억 약국, 병원, 업무시설 적합
- ★ [의료시설]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토지:580.40㎡(175.57평) 건물:2,889.86㎡(874.18평) 지하2층 지상6층 매매가:37억 상권밀집지역에 위치, 주변 아파트밀집지역

토지

- ★ [토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강정동 토지:3,891㎡(1177평) 매매가:35억3천1백만
- ★ [토지]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토지:1948㎡(589.27평) 매매가:29억4천5백만 신양파크호텔에서 무등파크호텔가는 도로의 카페거리에 위치 투자가치최상

광주·전남 병원건물(요양, 한방)매매·임대 다량보유, 사우나건물 전문상담

공인중개사 전민규 062-714-2251, 010-4234-8640